

# 문학적 상상력으로 읽는 고전의 세계

## 《성서》·《오디세이아》 등 소설로 재구성

이탈리아에서는 우리말로도 번역된 《판타 레이》와 《춤추는 여신들》(리브로)의 작가 루치아노 데 크레센초를 ‘디볼가토레(Divulgatore)’라고 부른다. 무슨 주제가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 대중에게 널리 ‘퍼뜨리는 사람’, 즉 일종의 ‘교양저술가’를 뜻한다. 그가 쓴 위의 소설은 각각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과 《일리아드》를 재구성한 것. 최근 서점가에 이런 ‘디볼가토레’의 저작들이 쏟아져 눈길을 끈다.

### 갑자기 불어닥친 성서 소설 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지난해 말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성서 소설류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목사이자 작가인 윌터 웅거린이 현대소설의 형태를 빌려 쓴 작품 《성서》(황금가지)다. 주인공이 따로 등장하지 않는 《성서》를 소설로 만들기 위해 글쓴이는 불변하는 ‘신’과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이에 따라 전3권으로 구성된 ‘구약편’은 신과 최초로 약속을 맺은 사람인 아브라함에서 시작해 예루살렘의 재건,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으로 끝난다. 반면에 전2권인 ‘신약편’은 예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본 예수의 인물됨과 사건들이 소설적 문체로 그려진다.

이렇게 《성서》 전체를 소설로 재구성하는 시도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성서》의 일부를 다룬 작품은 밀턴의 《실락원》, 김동리의 《사반의 십자가》를 비롯해 그간 수없이 많았다. 최근 출간된 책으로는 제럴드 메사다에의 《모세》(바다출판사), 폴턴 오슬로의 《소설 바울》(장락), 김진국의 《성경 속의 라이벌》(뜨인돌) 등이 있다. 이 책들은 문학적 상상력과 성서적 해석 사이에서 미묘하게 줄타기하며 경전 속의 인물들을 생생하게 부활시킨다.

먼저 《모세》는 현실성에 바탕을 둔 모세 다시읽기다. 글쓴이는 역사·신화·문학을 결합시켜 성서 속의 인물 모세를 비평적 분석 방법을 사용해 복원시킨다. 모세의 출생 역사 성서와 달리 이집트 왕녀와 히브리 노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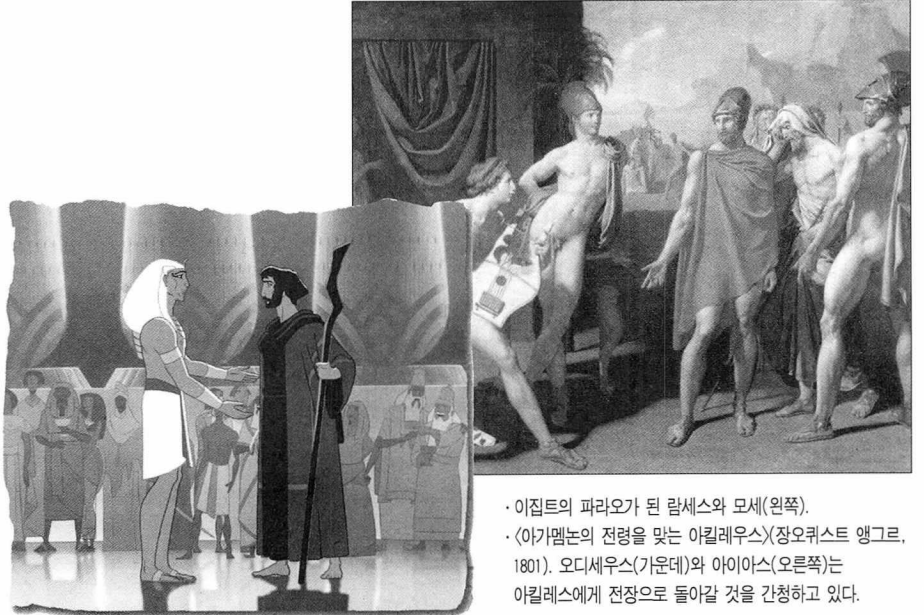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설정했다. 《소설 바울》은 《신약성서》의 문체적 인물 바울의 전도 여행 및 복음 전파 과정을 재구성한 것. 폴턴 오슬로는 이전에도 소설 《예수 그리스도》를 쓴 인물로 성서 속의 인물과 사건을 역사적 시대상황과 연결시켜 이야기하는 데 능하다. 《성경 속의 라이벌》은 라이벌 관계로 성서상의 인물들을 재구성하는 특이한 책이다. 예를 들면, 물로써 세례를 베풀며 큰 세력을 형성하던 선지자 요한과 율법주의를 깨뜨리고 사랑을 강조하며 새롭게 떠오르던 예수를 좋은 의미의 라이벌 관계로 보는 식이다.

### 문학적 상상력으로 고전의 빈틈 메워

《성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 로마 신화》 역시 토마스 볼핀치 이래 수없이 소설화됐다. 이는 최근에도 계속돼 《신그리스 신화》(현암사)를 쓴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가 미하엘 퀴마이어는 《오디세이아》를 바탕으로 《텔레마코스》·《칼립소》·《오디세우스》·《페넬로페》 등 4권의 소설을 썼다. 현재 국내에는 현암사에서 앞의 두 권이 번역된 상태. 《성서》와 달리 문학적 상상을 폭넓게 할 수 있어 원작과 많은 부분 다르다.

《텔레마코스》는 아들의 눈을 통해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다룬 작품. 호메로스의 원작에서 텔레마코스는 어머니의 구혼자들을 물리치고 가문을 지키는 영웅으로 묘사되지만, 이 소설에서는 평범하고 내성적인 스무살 청년으로 나온다. 오디세우스를 붙잡고 있던 요정을 다룬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와 칼립소간의 사랑을 다룬 연애소설이면서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생각하는 철학소설로 다시 태어났다. 그밖에 최근 비봉출판사에서 나온 《일리아드》·《오디세이》(이세진 번역) 역시 호메로스의 원작을 현대인이 읽기 쉽도록 재구성한 책이다.

동양의 고전 가운데 원전 자체가 흥미진진해 소설로 옮기기 쉬운 고전도 있는데, 바로 한문이 생긴 이래 장면전환과 심리묘사가 가장 뛰어난 책으로 평가받는 사마천의



· 이집트의 파라오가 된 람세스와 모세(왼쪽).  
· 《아가멤논의 전령을 맞는 아킬레우스》(장오귀스트 앵그르, 1801). 오디세우스(가운데)와 아이아스(오른쪽)는 아킬레우스에게 전장으로 돌아갈 것을 간청하고 있다.

《사기》다. 김병충의 《소설 사기》(문예출판사)는 130권에 이르는 사마천의 방대한 저술 중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부분만을 간추려 소설화한 것으로 춘추전국시대부터 전한(前漢)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한 호흡으로 그려냈다. 이 소설은 진시황의 아버지 여불위의 등장부터 진시황의 천하통일과 분열, 유방의 재통일까지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펼친다.

이밖에 《세종실록》에 근거해 세종대왕의

일대기를 소설로 풀어쓴 이상우의 《세종대왕》(동방미디어), 《난중일기》를 중심으로 이순신의 일대기를 소설화한 이재운의 《새 난중일기》(명지사) 등도 고전을 풀어쓴 소설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들 책은 고전을 이해하는 한 방법으로 소설이란 형식을 택해 문학적인 완성도가 떨어진다든 평도 있으나 누구나 쉽게 고전의 세계를 맛볼 수 있어 새로운 교양소설로 자리잡고 있다. — 김연수 기자

## 따뜻한 눈으로 보면 세상은 행복해질까

### 일상의 작은 행복 찾는 책 줄이어

일상의 작은 행복을 찾는 책들의 인기가 시들 줄 모른다. 최근 한달 남짓 쏟아진 책만도 30여종을 헤아리니, 한때의 유행이라고 하기에 넘친다. 처음 이같은 흐름을 주도한 것은 사소하고 평범한 이웃들의 감동적인 일화모음. 가난한 사람·노인·장애자·부진아 등 사회의 음지에서 흔적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형태도 아주 다양해졌다. 동화나 우화, 한가지 주제로 쓴 여러 저자들의 글모음, 편지 등 논픽션 연작, 한 저자가 쓴 회고·명상조의 에세이 등. 이들 책은 인생의 의미와 참 행복이 무엇인지 추구한다는 점에서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행복이 멀리 있지 않으며, 큰 것보다 작은 것에

깃들고,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에서 비롯된다고 한결같이 말한다.

### 일화모음에서 어른을 위한 동화까지

어른을 위한 동화·우화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면서 동심이 가진 착한 정서를 전한다. 문학동네가 펴내는 <어른을 위한 동화>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스테디셀러가 되자 명상우화, 어른이 읽는 동화, 우화소설이 쏟아졌다. 정호승 《연인》(열림원), 전운호 《작은 개 이야기》(해당술), 김승준 《내일이 아름다운 이유》(실천문학사), 스킵트 펙 《우리들이 잊고 지내는 진실》(청양) 등은 우리들 가슴 속 어딘가에 감춰져 있는 사랑을 찾아가기도 하고, 삶의 주체에 대해 성찰하

기도 한다. 또 험난한 세상에서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장애인의 삶과 눈송이를 따라 여행하며 사랑을 만나기도 한다. 동화에 어울리는 그림이 빠질 수 없고, 100쪽 안팎의 짧은 길이라 부담이 없다.

감동적인 일화모음은 여전히 강세다. 이런 책들은 삶의 지혜를 터득케 하고 세상 이치를 밝혀주며(《인생의 나침반》(고려원미디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충실한 삶을 이어가도록 도덕적 교훈과 가르침을 준다(《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기적들》(황금가지)). 또 맑고 깨끗한 이야기들을 통해 잠시 머물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바람의 고향악》(열린))해 주고, 아름다운 우정에 관한 12편의 이야기가 후독한 시편을 미주한 이에게 따뜻함을 전해준다(《너를 위한 내 마음의 따스한 방》(백의)). 위대한 작가 12명의 글을 모은 《가장 행복했던 날의 이야기》(세계사)는 추운 겨울을 배경으로 한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욱 값진 사랑의 가능성과 인간애를 보여준다. 소중한 사람에게 깨달음을 전해주는 책(《나도 몰래 지혜가 샘솟는 이야기》·《나도 몰래 마음이 열리는 이야기》(창해))도 있다.

개인의 단상을 모아 행복의 철학을 일러

주는 책도 한 흐름을 이룬다. 김주원 《행복이 창문을 두드리네》(오리진), 홍기삼 《들풀도 고향이 있다》, 안도현 《외로울 때는 외로워 하자》(이상 샘터), 김홍신 《행복과 갈등》(시공사), 헤르만 헤세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투영), 베티 B. 영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이레), 미셸 투르니에 《떠나지 않는 방랑자》(영림카디널) 등은 세속적인 가치 대신 인생을 가득 메우고 있는 작은 행복에 눈뜨라고 권한다.

친절하게 행복을 취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준다. 선물·편지·자선 등으로 사랑을 표현하라는 노영심 《선물》(중앙M&B), 백서해 《그래도 나는 사랑이 그림다》(정민미디어), 김제철 《보리밥과 쌀밥》(좋은날), 박서래 엮음 《여보, 힘내세요》(지원북클럽), 보건사회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엮음 《행동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존 그레이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친구미디어)가 그 지름길을 보여준다.

#### 국내 저자의 단상도 눈에 띄어

외국의 일화를 모은 것이 처음에 베스트셀러 현상을 주도했다면 차츰 국내 저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두드러진 특징. 아예 주제를 정해 원고를 모아 엮은 것도 눈에 띈다. 《처음처럼, 그 설레임으로 영원히》(동인)는 윤후명·구효서 등 소설가의 첫사랑을 모았고, 오정희·김용택처럼 지방에 살고 있는 문인 6명의 사람·고향·자연에 대한 생각들을 모은 《꽃이 피는 그 산 아래 나는 서있네》(좋은생각) 같은 책들이다.

경제불황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쓰디쓴 현실 위에 입힐 달콤한 '당'의 일지 모른다. 사소한 일상에서 끄집어낸 이야기는 책마다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독자들이 쉽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 또 부담없는 길이, 아무데고 펼쳐 읽어도 되는 간편함이 대다수 출판사의 말대로 '기본 부수'를 보장해 준다. 하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정신분석의 이나미 박사는 "그 단계에서 몇 발짝만 더 나가 문제의 본질을 바로보고, 해결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당의는 쉽게 녹고, 현실은 어김없이 쓰다. — 이현주 기자



책과

괴상

박 시백.

